

# “황교안, 두달 연속 여야 1위... ‘첫 등판’ 유시민 2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두 달 연속 여야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이 조사에 처음 포함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여야 전체 2위, 범진보·여권 1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5~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11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 6.5%에게 여야 주요 정치인 12인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황 대표가 전월 대비 0.8%p 상승한 17.9%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터가 지난 달 처음으로 대선주자 명단에 포함한 유시민 이사장은 13.2%를 차지해 2위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유시민 이사장이 ‘없음·모름·무응답’ 유보층과 다른 여권주자의 선호도를 고르게 흡수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취임하면서 공직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1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문을 보내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 측은 유시민 이사장을 여론조사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 “오마이뉴스가 결정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오마이뉴스는

##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의뢰 대선주자 선호 조사

### 황교안 17.9%...유시민 13.2%, 여권 내에선 1위

여론조사 발표 후 입장을 내어 “사전 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응답자들이 유시민 이사장의 이름을 직 접 호명했다”며 “본인이 희망한다는 이유로 빼는 것은 조사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조사에서 유 이사장의 등장으로 전월 대비 3.8%p 내린 11.5%로 2위에서 3위로 한 계단 하락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0.2%p 하락한 7.6%로 3위에서 4위로 물러났다.

이여 박원순 서울시장(0.8%p ↓·6.4%)이 5위, 김경수 경남지사(0.8%p ↓·6.2%)가 6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0.5%p ↑·5.8%)이 7위,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0.9%p ↓·5.0%)가 8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0.6%p ↑·4.9%)이 9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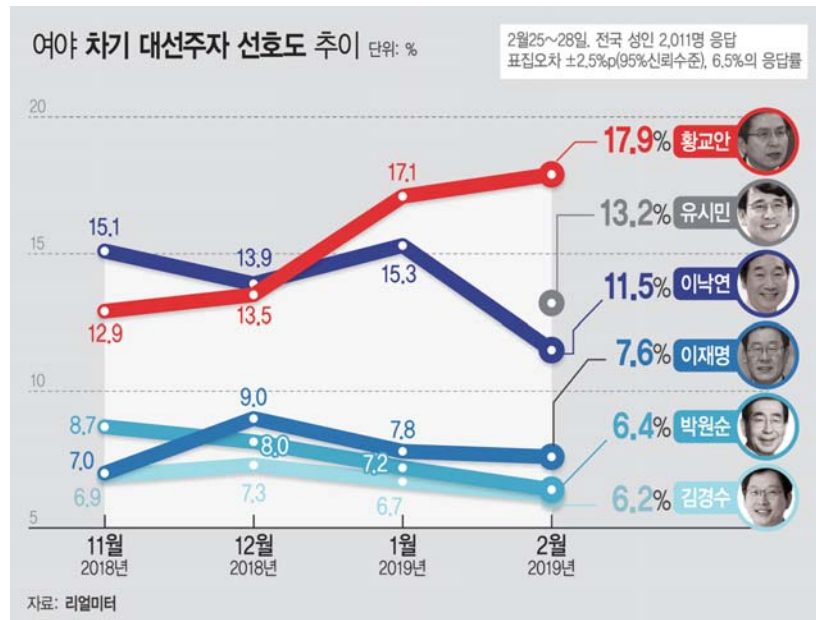
다음으로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1.2%p ↓·4.8%)가 10위, 심상정 정의당 의원(1.9%p ↓·4.4%)이 11위,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0.1%p ↓·3.2%)이 12위,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0.1%p ↓·3.2%)이 12위로 나타났다. ‘없음’은

6.3%(1.8%p ↓), ‘모름·무응답’은 2.8%(1.6%p ↓)로 집계됐다.

황 대표는 지역별로 광주·전라(3.4%p ↑·5.3%→8.7%), 서울(1.7%p ↑·16.2%→17.9%), 경기·인천(1.3%p ↑·14.0%→15.3%), 연령별로 80대 이상(3.0%p ↑·27.5%→30.5%), 20대(3.0%p ↑·7.8%→10.8%), 50대(2.4%p ↑·20.5%→22.9%), 지지정당별로 정의당 지지층(3.3%p ↑·2.5%→5.8%), 바른미래당 지지층(1.7%p ↑·8.6%→10.3%), 이념성향별로 진보층(3.7%p ↑·5.3%→9.0%)에서 상승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1.7%p ↓·21.2%→19.5%)과 대구·경북(1.3%p ↓·31.5%→30.2%), 30대(3.0%p ↓·12.8%→9.8%)와 40대(2.9%p ↓·12.0%→9.1%), 한국당 지지층(2.1%p ↓·49.1%→47.0%), 보수층(2.7%p ↓·36.7%→34.0%)과 중도층(1.3%p ↓·15.9%→14.6%)에서는 하락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40대(23.1%)와 20대(12.6%), 민주당 지지층(22.2%)과 민주평화당 지지층



(21.3%), 정의당 지지층(15.7%), 진보층(20.5%)에서 1위를 기록했고, 대전·충청·세종(17.8%)과 경기·인천(15.0%), 광주·전라(13.4%), 부산·울산·경남(10.8%), 50대(12.3%)와 30대(11.7%), 중도층(14.3%)에서 2위로 나타났다.

범진보 대선주자를 결정한 범여권·무당층(민주당·정의당·평화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212명 ±2.8%p)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18.8%를 득표해 1위를 기록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달 대비

4.6%p 내린 16.8%로 2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이재명 지사는 0.2%p 올랐지만 10.8%로 3위를 기록했다.

이여 김경수 지사(0.6%p ↓·7.3%)가 4위, 박원순 시장(2.4%p ↓·7.0%)이 5위, 심상정 의원(3.0%p ↓·5.6%)이 6위, 김부겸 장관(0.5%p ↑·5.5%)이 7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황교안 대표(0.1%p ↑·5.0%)가 8위, 오세훈 전 시장(0.6%p ↑·3.6%)과 유승민 전 대표(1.4%p ↓·3.6%)가 공동 9위, 안

철수 위원장(0.4%p ↑·3.4%)이 11위, 홍준표 전 대표(0.8%p ↓·2.7%)가 12위로 나타났다. ‘없음’은 7.4%(2.3%p ↓), ‘모름·무응답’은 2.7%(2.7%p ↓)로 집계됐다.

범보수 대선주자를 결정한 보수이념·무당층(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1023명 ±3.1%p)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전월 대비 0.6%p 하락한 31.3%로 1위를 차지했다.

오세훈 전 시장은 0.6%p 오른 9.1%로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반면 홍준표 전 대표는 1.7%p 내린 7.2%로 2위에서 3위로 하락했다. 유승민 전 대표는 0.8%p 내린 6.9%로 4위를 유지했다.

이여 유시민 이사장(5.8%)이 5위, 박원순 시장(1.2%p ↑·5.2%)이 6위, 김부겸 장관(1.6%p ↑·4.6%)이 7위, 이낙연 총리(0.9%p ↓·4.1%)가 8위, 김경수 지사(0.7%p ↓·3.8%)와 안철수 위원장(0.2%p ↓·3.8%)이 공동 9위, 심상정 의원(0.5%p ↑·3.6%)이 11위, 이재명 지사(0.1%p ↑·3.5%)가 12위를 기록했다. ‘없음’은 8.4%(1.6%p ↓)로 집계됐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뉴스스



이해찬-박원순, 제로페이로 구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제로페이' 모범단지인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해 한 상가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물건을 사고 있다.

## 박지원 “文대통령, 평양가서 김정은 달래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4월께 대북 특사를 보내 분위기를 잡고 이른 시일 내 평양을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달래주고 미국과 다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부터 북한의 인민회의가 있고 내각 개편 등 인사 개편이 있을 것”이라면서 “그때도 굶지 않고 계속 판문점 등에서 접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평양을 두 차례 연속 방문하는 모양새가 돼서 저자로서 보이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지적에 “북미 간 대화의 테이블에 다시 나오게 할 것은 세계에 서 문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따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北 김정은, 서울 답방 어려울 듯”  
“4월 특사 파견해야...서훈 적임자”

그는 또 대북 특사로 “문 대통령의 신임도 받아야 하지만 북한과의 관계도 좋아야 한다”면서 “서훈 국정원장이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 인사들과의 친분이나 내용,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분”이라고 언급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文대통령 “에듀파인 필요” “유치원 3법”도 통과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서 이미 의무 사용하고 있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유치원 3법’도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유치원 개혁 연기 파동이 마무리 된 상황을 거론하면서 “함께 애써주시는 분들 덕분에 지난 남은 속에는 여전하다”며 이렇게 적었다.

문 대통령은 “과정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묵묵히 헌신하는 유치원 교사들이 계시기에 아이들은 행복하고 우리의 미래는 밝다”며 “이를 먼저 생각하는 선생님들과 믿고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유아교육 개선 방안에 지혜를 모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